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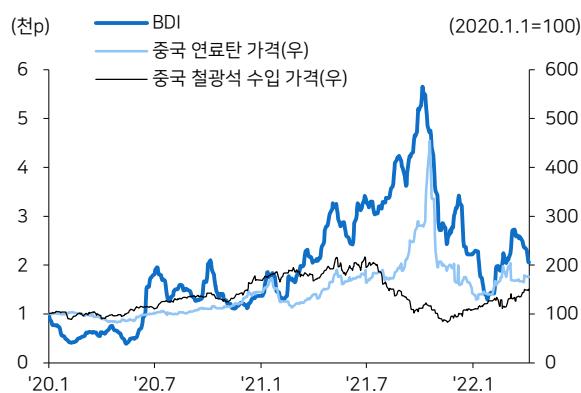
2022. 4. 11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건화물운임(BDI)

2,055.0p(-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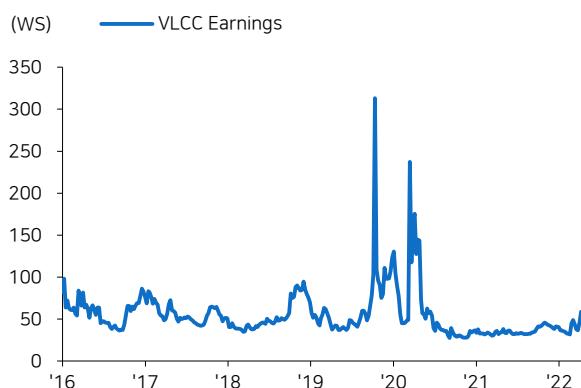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63.7(-85.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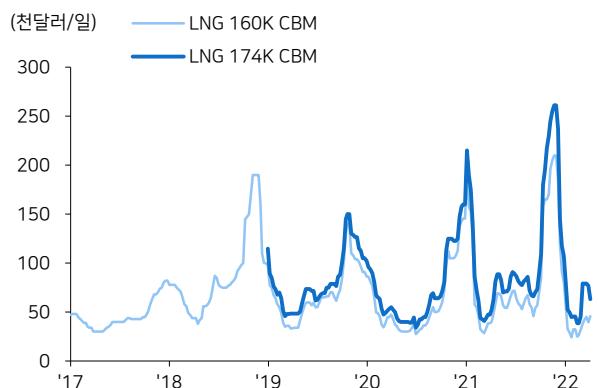
VLCC Spot Rate

58.9(+13.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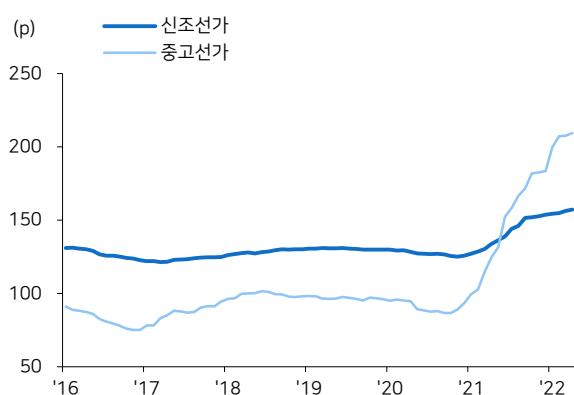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46.0p(+6.5p WoW)
63.3p(-13.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7.2p(-0.1p WoW)
210.4p(+1.0p WoW)



항공시장 지표

271.1p(-1.9p DoD)
96.7p(-0.9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티웨이항공, 대형기 A330-300 도입...김포~제주노선 투입

티웨이항공이 A330-300 기종을 신규 도입했다고 보도됨. 오는 15일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될 예정임. 지난 3월 도입된 A330-300 1호기는 3월 22일부터 운항 중임. 5월 중순 3호기가 도입될 예정임. (에어진)

유조선 시장에도 봄날은 오고

Suezmax 탱커가 VLCC를 계속 밀어줌으로써 탱커 운임이 2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주로 대서양 수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특히 Suezmax가 VLCC 운임을 느리지만 강하게 밀어 올려주고 있다고 설명함. Suezmax 탱커 공급량이 빠듯하게 유지되며 운임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 VLCC TCE(Time charter equivalent)기준 운임은 6,550달러/일로 오르며 흑자 운항으로 돌아서기 직전까지 왔음. (선박뉴스)

Massive US oil release expected to benefit US gulf crude tankers

미국 비축유 방출으로 미국 걸프만 원유 탱커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도됨. 매크로 상 미국 방출유는 방출 기간 전세계 수요의 약 1%에 불과하지만 단기적으로 걸프만 탱커들은 수혜를 본다고 언급됨. 4월 8일 기준 탱커 운임은 11일 거래일 연속 상승함. Gibson에 따르면 비축유 방출으로 미국의 원유 수입량은 감소하지만 언젠가 다시 비축하게 되는 시점에는 수출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언급함. (Tradewinds)

Covid-19 be damned: Asia has finally stolen the limelight

아시아 선대가 마침내 유럽 선대를 넘어섰다고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아시아 선대가 43%, 유럽이 42% 비중을 차지함. 아시아 선대 확대에는 중국이 지난 12년간 두 배 확대한 영향이 큼. 중국이 전세계 선대의 15%, 일본이 12% 비중을 차지함. 전세계 top10 선사들이 발주한 신조선 중 약 72%가 아시아 top10 선사에 속함. (Tradewinds)

Ports of LA, Long Beach delay cargo fee again

LA, 롱비치 항구 컨테이너 장기적체로 부과가 또다시 연기됐다고 보도됨. 이번주 중(11일) 벌금 부과 조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4월 15일 시행여부를 발표할 계획임. 4월 8일 기준 터미널 적체 컨테이너는 해당 조치가 발표된 10월말 대비 49% 감소했다고 보도됨. 그러나 4월 1일 56%, 3월 25일 57%를 발표한 것에 비하면 악화된 상황임. (Los Angeles Daily News)

상하이 조선사들, 불가항력 선언

상하이 소재 조선사들이 일제히 건조 작업을 중단하고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됨. 시 전체가 봉쇄되는 바람에 중국 정부로부터 조업 중단 명령을 받게 되자 미인도 선박의 적기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임. 선박의 연료 공급과 선박 부품 공급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